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첫마음, 정신으로!

나는 제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선포했다.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다.

지금 나의 마음에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성회를 통해 평화통일에 레일을 깔고 있으니 머지않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이 기대하는 바요, 크게 우려하는 바는 ‘가장 한 번 해봤는데 쉽지 뭐.’ 하는 나태한 생각과 안일한 생각이 그것이다.

여리고성 공략에 성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을 나는 안다. ‘그 정도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에 9차에 걸친 기도성회로 우리 목사들과 직원들과 성도들이 타성에 젖었을까봐 심히 걱정된다.

그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92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하던 때의 정신으로. 첫 시청 앞 집회를 위해 몇 달 동안 밤을 새며 고민하고 부심했던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작품이 그냥 얻어진 것이던가!

나는 뭐든 명작을 원한다. 시장에서 1등이 아닌 것은 다 거둬들이라던 어느 기업가의 정신이 내게도 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받으셔야 할 것에 대충은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작품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나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란다. 준비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 단을 쌓는 일이나 홍보하는 일에 모두 힘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믿는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라고 하신 말씀이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약 한 달 남짓의 준비기간이 있다. 명작은 열정과 노력의 대가이며, 고통과 번민이 산물이니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또 한 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자.

옥토(沃土)에 심기었는가?

우리의 아름다운 성산,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장장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 수련회 및 하계산상집회 일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단에 서는 종들마다 혼신의 힘을 다했고, 무엇보다 총회장 목사님은 연일 밤 12시를 넘겨가며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살찌우려는 목자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셨다. 또한 온몸으로 헌신한 기도원 식구들,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생명보다 귀한 물질로, 각종 부식으로 후원해준 성도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분들, 모두 하나하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신바 되었다고 믿는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일치한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 마음 밭에 떨어졌다 해도,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않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일생에 예수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겠는가?’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으로 응답한 것도 물론 위대하지만, 그 대화를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겨 아이스크림 3,000개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과며 계란, 바나나 등을 보낸 그 행동하는 믿음이 더욱 위대하다.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위대한 말을 하는 자보



그러나 특히 기억할 것은 마지막 예배에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0~42).

하늘나라에 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널린 기회들이 우리 주위를 무수히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13:3~8).

아무리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나가서 실행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야말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사님께서 ‘내 설교는 쉽지만 행동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발 듣지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해보라는 말씀 아니겠는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어야한다’고 하지

다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산상집회를 시작하며 성산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단에 섰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성도, 곧 배운 대로 실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3:1~21)



그날에 받을 상을 보고 뛰어라

졸업식 때면 시상식을 합니다. 졸업장만 달랑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개근상을 받는 자들도 있고, 성적 우수상을 받는 자들도 있고, 공로상을 받는 자들, 더는 교육감상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네들은 재학시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각 분야에 기여했기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졸업하고 졸업식장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믿지 않은 자들이야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온 자가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고, 더는 한 고을, 다섯 고을, 열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있게 됩니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니까요. 상은 좋은 것이지만, 다 받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누가 몸이 부서져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지요. 그러나 그 날의 상을 알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도 하늘의 상을 목적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화환만 보지 말고 꽃씨를 보고 이생만 보지 말고 내세를 보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11:6).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상이 없다면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고전15:19).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며, 이유도

없는 불이익을 당해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1~12).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과 면류관으로 보상하실 테니 조금만 참읍시다.

제가 늘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닦달하지요? 사실 그거 여러분 상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전도상입니다. 당연히 하

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

셨으니깐요(눅15:7).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이는 전도하는 자가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상을 더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베

루는 삶,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외로운 자들을 찾아보는 것 모두 하늘의 상을 받을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마10:41).

인내하는 자가 받는 상도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율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

서

자기
를 사랑
하는 자들
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

을 것임이니라”(약1:12). 정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 집니다.

조장·구역장님들, 유치부 교사님들,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아도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2~4).

새벽에 일어나 안내서시는 장로, 집사님들, 한복 입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성도님들을 맞으시는 권사님들, 성가대 여러분들, 헌금위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믿으시지요? 그래서 충성하시는 거지요?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쇄든, 전도든, 구제든 드러나게 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행상이나 전도상이 없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1~2). 예전에 제가 한 꿈을 꿔는데,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니까 제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름 남들보다 십일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가 다 해놨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 과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사람들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당연히 하늘에는 상이 없지요.

여러분, 저의 꿈은 나중에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눅22:29~30). 이는 저의 당당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꿈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핍박마저도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롬8:18). 여러분도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위해 사셔야 합니다(계3:11).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지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비하는 자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준비라는 친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니 기회라는 친구와 가장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도 지혜로우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더욱이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사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다 하나님이 아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 그날 받을 상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자금이 유동적이든 유동적이지 아니든 증시가 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구스타프 르봉이 말한 대로 증권시장은 대중심리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식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투자자 코스트라니는 ‘주식시장의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집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매도자가 주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이 있으나 꼭 사야 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개가 이리저리 난폭하게 달리기도 하듯이,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여러 번 급속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요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돈’입니

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은 것이지요. 두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투자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어서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자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합니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죠. 반면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여유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중기적으로 주식거래의 경향은 돈과 심리, 즉 근본적인 사실보다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친구의 상상력과 기도는 예수님을 움직였고, 결국 일어나 걷는 복을 받았습니다(막2:3~12). 따라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면 우리를 기억하신바 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인(聖人)의 척도는 천진상을 가진다. 어린아이와 같다. 또한 상대방과 공감하는 정도가 성인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 말들은 내가 공감하는 말들이다. 이번 기도원 집회 때 설교 도중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시고 당신도 강대상 밑 계단에 걸터앉아 설레임을 쪽쪽 맛있게 빨아 드시며, ‘세상에 나 같은 목사 없을 거야’ 하시면서 껄껄, 킁킁 웃으신다. 천진상의 최고 경지다. 그럴 겁니다. 없을 겁니다. 끔찍했다. 기도원 셋째 주 첫날 밤,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으신 타교회 권사님이 내게 말했다. “내 65살 평생 남자한테 반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물의 2층, 3층을 지교회회를 위해 내놓겠다며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다.

다음날 상담을 위해 사택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담을 시작하시며 아예 사택 문을 열어놓으라 지시하셨다.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려니 무질서했다. 그래서 내가 안내역을 맡아 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문이 열려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 겸 들어왔다가 상담실로 들어오니 도저히 모두 상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지금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경하다 들어오

니 갑급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택 문을 잠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니 “놔둬라. 다 오게 해라. 밖에 플라스틱 의자 내놓아 앉아서 기다리게 해라. 4시에는 기도해야 하니 그때까지 상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과 상담하시면서 때로는 장애인으로 때론 박사의 모습으로 완전히 공감하시는 모습이 바로 성인의 모습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오로지 상담에 몰두하셨다. 가지 않고 자꾸 문제를 상담하면 다 들어주셨다.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 한 명 상담 마친 후 벽시계를 보니 3시 59분이다. 이런 놀라움 때가 있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만사를 뛰어넘은 천진상을 갖추시고 일백프로 성도와 공감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곧 성인(聖人) 아닌가? 성도마. 성 베드로. 난 누가 뭐래도 목사님 이름 앞에 꼭 붙여주고 싶다. 성(聖)이 초석. 같이 갈 수 있으니 이 어찌 은혜 아닌가. 할렐루야!

이광주 전도사

leekilkj@naver.com

나는 누군가의 거울이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생활하다보면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지내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상태를 점검하곤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총회장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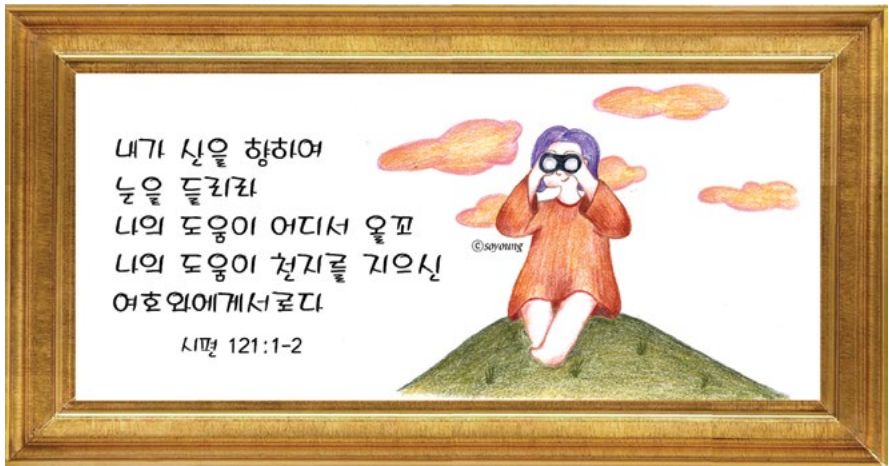
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기에 더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비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눈물의 운동회’라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다.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囚人)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들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다. 운동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날 잔치는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예선을 치른 구기 종목의 결승전을 시작으로 각 작업장별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벌어졌다. 달리기할 때도, 줄다리기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라! 여보, 힘내요... 힘내!’ 뭐니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

었고 마침내 출발신호가 떨어졌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의 눈물을 흘려 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 버렸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들이 언제 부모님을 등에 업고 뛰어 보았겠는가? 이들이 운동회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동심이 남아있었는가? 자신의 등을 내미는 것도, 그 등에 업히는 것도 참으로 씁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등을 돌려대는 순간, 등에 업히는 순간 감격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드라마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진행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등(손)을 내밀라고.

임택함 목사

훈계 없는 사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으로 아이를 1명밖에 갖지 못했다. 덕분에 부모는 물론이요,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모든 가족들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느라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이렇게 지나친 관심만 받은 아이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소황제(小皇帝) 세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요즘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가족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이들을 반드시 올바른 훈육을 통해 양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경도 훈계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직접적으로 표현은 잘하지 못했어도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 중 압살롬의 경우 그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버 다윗이 훈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녀였다. 일의 시작은 만아들 압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냉정하게 버리면서 시작된다. 비참한 일을 당한 다말이 오빠 압살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고하자 압살롬은 내심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암논을 크게 야단치거나 벌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다윗은 소식을 듣고 격노하였을 뿐 암논을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았고(삼하13:21), 결국 2년을 기다린 압살롬은 직접 암논을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만약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암논을 데려다 벌을 내리며 올바른 길을 가르쳤다면 다말의 남은 삶이 비참해지지도, 압살롬이 아버지와 형을 증오하느라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는 다윗을 보고 요압이 중재에 나서며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만, 다윗은 이때도 압살롬을 야단치거나 훈계하여 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기만 한다. 이후 괴로움에 휩싸인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양육태도는 압살롬의 이복동생 아도니아에게도 나타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왕상1:6)고 기록될 만큼 훈계 없이 양육했다. 결국 아도니아는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 가져야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때를 쓰기에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훈계 없이 바르게 자랄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훈계에서 상처가 아닌 교훈을 얻고,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기 위해 많은 묵상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심에 기꺼이 감사해야 하겠다. 우리를 훈계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훈계함이 곧 서로를 향한 사랑이자 믿음이기 때문이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잠4:13).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중의 하나인 심청전은 눈먼 아버지를 위하여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져오던 효행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놀랍고도 위대한 감동의 스토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림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

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A dreamer never gets old.
有梦想的人不会衰老。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옆드려 자는 것은 나쁘다

돌이 안 된 영아는 옆드려 잘 경우 영아 돌연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아진다. 처음부터 옆드려 잘 경우, 바로 누워 자는 경우보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가능성이 15배 높아지고, 옆으로 자다가 옆드려 자는 경우엔 45배나 높아진다. 따라서 어린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 그 밖에도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잘 때 또한 돌연사 위험성이 27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한 침대에서 어른과 아기가 함께 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1992년 미국소아청소년과학회가 아기를 옆드려 재우지 말도록 권고한 이후 영아돌연사증후군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돌연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아기를 옆드려 재우는 것이다. 또한 옆드려 잘 경우 척추의 정상 곡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목

과 척추가 비뚤어져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옆드려 자면 턱관절 장애를 포함한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생기고 심할 경우 부정교합이나 턱관절 디스크의 변위에 의한 하악골 좌우 비대칭,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구안와사(안면 신경마비) 증상도 올 수 있다. 또한 옆드려 자면 가슴이 압박되고 코와 입 등의 호흡 통로가 눌리고 변형되며 폐활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도 무리가 된다. 오랫동안 이런 자세로 자면, 중심을 잡는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 호흡을 하게 되어 구강 염증이나 호흡기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잘 때에 코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물이 목으로 넘어가 삼킴 작용이 이루어

어져야 하는데 옆드려 자면 사례가 걸리거나 기침 등을 유발해 잠이 깨게 되고 충분한 수면을 방해받아 건강에 해롭다. 옆드려 자는 자세는 목이 앞으로 꺾일 수 있어 경추 및 요추 건강에도 좋지 않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성기능에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며 다리를 벌리고 자는 자세라고 한다. 그런데 옆드려 자면 내부 장기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고환 및 생식기를 압박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올바른 수면 자세란 적절한 높이(6~8cm)의 베개를 베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이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채워진다. 건강한 수면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지혜를 먹으라

‘원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아래쪽에 유대인 여자 한 사람이 집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는 갑자기 장총을 들고 나와 이유 없이 그 여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하기 그지없는 포로수용소에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독일군이 키우고 있는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독일군은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수용소 마당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는 “누구야? 빨리나와. 안 그러면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차례로 쏘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자 독일군은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하면서 한 사람을 쏘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총을 겨누려 할 때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알고 있다며 나섰습니다. 독일군은 “누구야? 네가 훔쳤어?”라고 호통을 치자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지 네가 보았느냐?”고 묻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가리킨 사람은 이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전 8:12)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는 무수한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잠24:13~1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업령통방 잔피로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성실과 정직과 인내만이
성공에 이르는 요체다